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붐꽃 에디션' 선택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 붐꽃 에디션'을 내놓았다. 특별한 시기에 맞춰 패키지를 디자인을 선보이는 시즌별 에디션의 일환이다. 단지 모양 용기에 귀여운 표정과 활달한 꽃 그래픽을 적용해 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딸기맛우유와 4인 멀티팩 패키지에도 적용했다. 회사 측은 "봄꽃 에디션을 통해 팬데믹 완화 이후 처음 맞는 봄을 즐겁게 보내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최첨단 강의 환경으로 온라인 교육의 미래 선도

'1인 스튜디오' 연 고려사이버대...강의 품질 ↑

화정·진리관에 1인 스튜디오 구축
교수자-학습자 간 소통 강화 기대

끊임 없는 교수법 연구·개발 매진
틱톡·육군대 등 협업 시너지 확대

급변하는 사회 속에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흐름은 더 거세지고 있다. 평생교육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고려사이버대는 최고의 사이버대학이라는 위상에 안주하지 않고 최첨단 강의 환경 구축 및 새로운 교수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온라인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1인 스튜디오' 온라인 강의 제작 새 지평

온라인 강의는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장감이 떨어지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사이버대는 올해 화정관(종로구 북촌로)과 진리관(성북구 정릉로)에 1인 스튜디오(A, B)를 구축했다.

A스튜디오는 크로마키 스크린을 설치해 교수자가 강의 촬영 시 사전에 준비한 강의 노트 및 관련 사진, 영상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최첨단 촬영 장비와 환경을 조성해 학습자들이 마치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B스튜디오는 강의 촬영은 물론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 학습자들은 강의 시간에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최고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선도한다.' 올해로 개교 23주년을 맞은 고려사이버대가 최첨단 강의 환경 구축과 새로운 교수법 개발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 사진은 고려사이버대를 이끄는 김진성 총장.

●온라인 교수법 지침, 교수학습혁신센터

고려사이버대 교수학습혁신센터는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교수법과 학습법을 연구·개발해 온라인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차이점, 효과적인 교수법 등에 대한 정보 전달, 가이드 발간 등의 활동과 동시에 온라인 강의 학습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수자를 위한 '교수법 워크숍'에서는 교수들에게 수업 설계 및 운영, 수업 전략 및 프레젠테이션 기법, 매체 제작 및 활용과 교육 혁신 사례를 제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티칭 커뮤니티'를 활용해 온라인 교수 학습 노하우를 공유·축적해 교수 학습 모델을 체계화하고 확산

모형을 개발한다. 고려사이버대 교육개발혁신센터 최종두 센터장은 "1인 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하여 620여 개의 강의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강의의 양적 증가는 물론 질적 향상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기관과 협업으로 시너지 창출

고려사이버대 산학협력단은 공공기관 및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바탕으로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연 간 혁신적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숏폼 모바일 플랫폼 '틱톡(TikTok)'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소셜 임팩트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육군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육군대학 'Ed u-Tech'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AI 및 SW 분야의 국방 기술 교육을 위한 공동연구 및 자문 활동, 각종 포럼, 세미나, 학술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는 등 육군 핵심 인재 양성에 도 일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위사업청,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국방기술학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등의 공공기관들과의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대외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온라인 강의 제작의 새 지평을 연 고려사이버대의 1인 스튜디오(A), 고려사이버대 진리관, 계동 캠퍼스 전경(왼쪽부터).



사진제공 | 고려사이버대



윤혜영 대표

이병희 대표

쿠팡, 리테일 부문별 대표 체제로 로켓배송 강화

쿠팡이 리테일 부문별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로켓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 쿠팡은 28일 홈리빙, 레저, 그로서리, 로켓프레시 등을 총괄하는 윤혜영 대표와 가전, 미디어, 뷰티, 생활용품 등을 담당하는 이병희 대표를 리테일 사업부 최고경영진으로 발령했다.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다. 윤 대표와 이 대표는 로켓배송 초창기부터 배송 혁신을 주도해 온 유통 전문가다. 쿠팡은 이번 리테일 부문 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업그레이드하고 유통혁신을 통한 고객가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표는 "모든 생각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 될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하고, 도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상비일상의툐byU+ 방문자 100만 돌파

LG유플러스는 '일상비일상의툐byU+' (이하 토포) 누적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사진)했다고 28일 밝혔다. 토포는 2020년 9월 서울 강남대로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이자 소통커뮤니티다.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LG유플러스 서비스 뿐 아니라 MZ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전시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총 40여개 팝업이 열렸고, 방문자의 73%는 10~30대였다. 일평균 약 5600명이 토포를 찾았다. 김다림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은 "앞으로도 더 많은 MZ세대의 사랑을 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장애인 대상 '임직원 행복나눔 봉사'

광동제약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돕는 '임직원 행복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광동제약의 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이번 활동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월스토어 밀알송파점'에서 진행했다. 굿월스토어는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물품을 기증받아 재판매하는 매장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 경제적 약자를 우선 고용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광동제약은 2021년부터 비타500, 광동 옥수수수염차, 광동 헛개차 등 8000만 원 상당의 음료를 굿월스토어에 기부하고 있다.

금호리조트, 작년 매출 976억원...2년 연속 흑자

금호리조트가 금호석유화학그룹 편입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연간 매출액이 약 9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9%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8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배 이상 늘어났다. 금호리조트는 그룹 계열 편입 직후부터 이어진 시설 투자와 서비스 개선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금호리조트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의 레저 전문 기업으로 통영마리나리조트, 제주리조트, 화순리조트, 설악리조트 등 4개 콘도리조트와 아산스파비스, 아산스파포레, 아시아나CC, 웨이하이포인트 등 호텔&골프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HD현대, 권오갑 회장 3년 임기 사내이사 재선임

"새로운 50년 책임질 미래사업 준비"
HD한국조선해양 사명 변경 등 가결

HD현대가 권오갑 회장을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 회사는 28일 경기 성남 소재 글로벌 R&D센터(GRC)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권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외 장경준 전 삼일회계법인 부회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또 본점 소재지도 기존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GRC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으로 변경했다.

권 회장은 이날 주중 인사말을 통해 "HD현대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룹의 명칭을 HD현대로 변경했고 새 CI도 선보였다"며 "새 CI는 현대중공업의 전통과 유산을 살리되, 역동성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았다"고 했다. 또 "새 보금자리인 판교GRC는 그룹 내 모든 연구·개발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일하며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앞으로 GRC를 중심으로 스마트한 근무환경과 기업문화를 만들고 미래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HD현대는 새로운 50년을 책임질 미래사업을 착실히 준비



HD현대 '제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권오갑 회장.

하고 있다"며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를 통해 해양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소형모듈원자로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주당 3700원의 결산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간배당을 포함하면 연간 주당 배당금은 총 4600원이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영업보고(연결기준)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해 매출 60조8497억 원과 영업이익 3조387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HD현대의 조선 사업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도 이날 오전 GRC에서 '제4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에서 HD한국조선해양으로의 사명 변경과 경기도 성남으로의 본점 소재지 이전 등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총 5개 안건을 가결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